

안녕하세요. 서울 합격생입니다.

조금이라도 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합격 수기를 적어봅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번의 2차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임용 준비부터 위상 미술을 다니기 시작하여 일 년 패키지를 다녀 1차는 82점 가까이 맞았지만, 실기 점수를 최저점 받아 최종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임용에서는 1차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실패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자만이었습니다.

지난해 비교적 높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1차 공부에 대한 자만을 가지며, '1차는 통과하겠지.'라는 막연한 자만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타 학원 강의를 수강하면서 항상 3등 이내의 모의고사 성적을 받으며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총 공부 시간을 4시간도 못 채우는 일이 허다했으며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며 공부한다는 착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두 번째, 예쁘고 잘 정리된 서브 노트 만들기입니다.

공부에 지겨움을 느꼈기 때문에 자료 정리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더 깊은 자료, 더 좋은 자료를 구하며 예쁘고 완벽한 서브 노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브 노트를 여러 번 보기 위해 만들기보다 정리를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브를 만들면서 기본보다는 심화 내용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10월 가까이 서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였고 이것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서브 노트를 만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얇게 만드시길 추천해 드리며, 반드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쁘고 완벽한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것은 욕심이며 저처럼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월 안에 다 만드시길 추천해 드리고, 초수 분들이라면 단권화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의 덜렁거리는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보지 못하여 조건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건을 읽지 않아서 알고 있는 타족도 고사를 쓰지 못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실패를 경험하고 장지연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는 저의 문제점을 함께 분석해주시고 공부 방법을 다시 알려주시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결국 서울 최종합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팁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공부 범위

“위상 미술에서 다룬 범위 위주로 공부”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걸 1순위로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중요하다든 것은 정말 여러 번 보고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제까지 범위”

저는 장수를 하다 보니 기본보다 심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공부하는 것이 지엽적인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은 항상 기출 문제였습니다.

조금 지엽적일지라도 기출 문제에서 다루는 범위라면 확인하고 넘어갔지만, 기출 문제에서조차 나오지 않은 범위라면

과감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인 내용은 공부의 5%로 내외였으며, 1순위는 수업 중에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2. 스테디

“불안하다고 스테디 하지 말 것”

저는 시험 준비하면서 참 불안했습니다. 스테디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늘 스테디를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며 지냈고 불안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테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고 독립적인 성향이라 스테디를 안 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스테디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스테디가 도움이 되고, 학원 강의 이외의 지식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스테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3. 단권화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단권화하여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권화가 목표가 아닌 여러 번 보기 위한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노트나 책, 프린트 등에 중요 내용을 모으고 여러 번 보며 내용을 숙지하며 외웠습니다.

저는 비록 서브 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였지만, 그다음 해는 서브노트를 계속 돌려보며 암기에 집중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상 선생님, 장지연 선생님께서 중요하다 하는 인물이나 내용 위주로 정리한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서브 예시 (아이스너 일부)

미술교육 정당성	· 시각적 경험, 감수성, 독특한 개성 ①시각적 경험 제공 ②감수성 계발 ③조형능력 함양 ④문화적 자원 함양 · 인간이 미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미술의 독특한 공헌이다. 미술을 시각 형태에 대한 미적 인식을 다루는 데 그것을 다른 분야가 다루지 못하는 미적 인식이다.
표현(학습내용)의 중요한 요소	*학습 내용으로 설정하는 기능 ①재료다루기 ②형태지각하기 ③주어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형태 발견하기 ④공간질서, 미적질서, 표현질서 창조하기
17 성취도 평가하는 방법	표현능력 · 기능적인 면, 미적 표현측면, 창의적 과정, 태도 감상능력 · 작품을 표현하는 태도, 작품을 해석하는 태도, 작품을 판단하는 태도, 작품의 내용을 관찰하는 태도 · 작품의 전후 관계를 연관시켜 고찰하는 태도 등
지성	· 학습 경험으로 향상/ 지성은 자신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제가 나타날 때 방향을 변경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표를 재정의하는 능력
교육 내용	· 이해와 감상교육 강화 (미술제작, 미술문화와 역사, 미술 비평) · 재료 < 개념학습(매체나 재료보다 관련된 개념학습이 중요하고, 미술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측면의 교육 중시) · 선, 색, 구성의 세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의 이미지의 지각을 고양하는 비평적 영역과 사회생활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는 힘을 신장하기 위한 역사적 영역을 구성내용으로 추가 cf)미학: 시각적 특성, 근본 구조, 느낌, 의미, 미술용어 ·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감수성/ 시각형태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문화적 경험 속에서 미술이 수행하는 기능/ 감상하는 법
예술적 접근	· 예술성, 기예성(성격, 기질, 지식의 배경이 학생마다 다르다)
교육적 상상력	· 만족스런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목표와 내용 매체를 학생에게 맞게 변형하는 방법/ 어떤 과정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 교실은 의도, 계획한 상황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 상황
교육적 감식안	· 평가 용어로 규칙들이 의미를 해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을 때, 규범이 실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을 때, 교사는 예술가에 의지해야한다. 예술가나 장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실 생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꿰뚫어 보는 방법, 이론과 실제 상황의 간격을 캐치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예술성과 기예성을 강조(교사의 능력)/ 질적 방법, 문장기술
교육비평	개인적인 교육적 감식안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묘사), 해석, 평가, 주제화(cf)양적평가에서는 일반화라고 함) : 도구주의, 형식주의, 표현주의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미술 비평 · 경험(개인적 느낌 연계), 형식, 상징(은유, 상징, 알레고리), 주제(궁극적 의미), 재료, 사회문화적 요소
	다양한 재료 문제점 · 다양한 재료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동이 선호→ 작업 능력 부족을 느낌, 흥미저하 · 숙달에 많은 시간,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수업량 多, 프로그램 계열성 부족, 목표 산만(포괄적으로 추상적 제시할 가능성 ↑
표상형식	· 개인적 개념을 표상형식으로 공적 개념으로 전환→어린이 미술 표현 발달의 일반화 제시 · 모방적 양식, 인습적 양식, 표현적 양식/ 다양한 시각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따른 표상형식과 상징체계를 읽는 법을 배워야한다.
지식의 구성	· 감각 양식에서 일어나는 개념들 간의 상호작용

3. 문풀 활용

문풀 역시 자주 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문풀을 오려서 영역별로 나누어 붙였습니다. 모아서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주 보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자주 보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문풀 모음집과 기본서를 함께 봤습니다. 문풀과 기본서를 함께 보면, 문제 유형을 익히면서 중요한 이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위상 미술 패키지를 처음 듣고 1차 합격하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위상 미술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위상 미술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데 복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거기에 플러스된 제 사례를 적었기 때문에 따로 강의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합격 수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정답이 아니기에 이러한 글을 적는 게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라도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법보다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 인생에 합격은 없는가라는 좌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 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 수기를 읽은 선생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2020년의 합격을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